

물질 과잉 사회의 이면...이완 개인전

기사입력 2015-04-15 18:09



'메이드인 코리아 짚신'의 영상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작년 삼성미술관 리움의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상한 이완의 개인전이 15일부터 5월20일까지 강남구 '313 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린다.

'울고 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급격한 경제 성장이 만든 물질 과잉 사회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문제에 집중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메이드인 코리아' 연작은 작년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수상작인 '메이드인' 시리즈의 연장 선상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시리즈는 총 10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번 전시에서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전근대편 '짚신'과 60-70년대 가발 산업에 주목한 근현대편 '가발'이 전시된다.

'메이드인 코리아 가발'은 60년대 호황을 이뤘던 한국의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상과 함께 작가가 직접 제작한 가발이 함께 전시된다.

'취미수집'은 작가가 몇 해에 걸쳐 수집한 근현대의 생산품들로 구성된 아카이브다.

여기에는 작가가 찍은 사진,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그림,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종교적 상징물들이 포함된다.

전시 기간 금융 프로젝트 '뱅크 오브 이완(WAN)'이 함께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직접 제작한 화폐 '1완(WAN)'을 관객에게 1만원에 판매하는 데서 출발한다.

작가는 이 화폐를 판매해 거둬들인 돈을 활용해 실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예정이다. 구매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지불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근현대의 계몽포스터를 연상시키는 회화 작품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 네온으로 그려진 한국의 전통 산수 작품 '핑크빛 네온 산', 가격표가 붙은 종교적 상징물을 촬영한 사진 연작 'Product' 등이 전시된다.

hisunny@yna.co.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 [오늘의 HOT] 눈을 땔 수 없는 비키니 패션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7532091>
